

선교사의 생활에 요구되는 것

선교사 생활에 적응함(자료 책자, 2013)에 근거함

(교회에 들어오거나 새로운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면, 그런 상황에 마음이 들뜨고 앞일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움을 감당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발전하게 된다.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다. 선교 사업이 멋진 영적인 모험, 또는 적어도 감당할 수 있는 도전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않은 문제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거나 불쾌한 경험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과거에 의지했던 방법들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해 보겠다는 마음 대신 불안하고, 민감해지며, 지치거나 좌절하게 될 수도 있다. 통증, 배탈, 불면증, 또는 질병과 같은 증상이 몸에 나타나기도 한다. 학습 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낙담하거나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다.

선교 사업에서 요구되는 것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요구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변화와 과도기를 겪게 된다. 자신에게 익숙한 대처 방법을 쓸 수 없는 때도 있으며,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한다. 휴식을 취하며 보내던 저녁 시간과 주말은 이제 가장 바쁜 시간이 되었다. 여러분은 곤란함을 느낄지도 모른다.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힘들어하는 다른 선교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될 것이다.

신체적인 요구

여러분은 하루에 11~12시간을 걷고,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서 있으면서 보낼 것이다.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적어졌을 수도 있다. 음식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곳은 날씨에도 돌아다녀야 하고, 새로운 병원군에도 노출될 것이다. 또 낯선 환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지치게 할 수 있다.

정서적인 요구

해야 할 일이 걱정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향수병이 생기고, 낙담하며, 싫증이 나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 반대에 부딪히고 실의에 빠지며, 심지어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곁에서 도와줄 수 없는 가족이나 친구가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사회적인 요구

여러분은 공통점이 많을 수도, 그다지 없을 수도 있는 동반자와 한정된 장소에서 생활해야 할 것이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교회 회원들과 빠르게 알게 되고, 구도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적인 요구

여러분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할 수도 있다. 토론과 경전을 통달하고, 교수법을 습득하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한다.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고 관리하며, 변화에 순응하고, 온갖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영적인 요구

여러분은 간증을 강화하고, 유혹을 이겨 내며, 영을 느끼고 인식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다. 지적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단점과 후회가 되는 면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예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험에 적응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할 때와 다시 선교 임지에 파견될 때 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네 단계(또는 상태)를 거치게 된다.

1. 기대

여러분은 임무에 착수하려는 열의에 가득할 것이다.(니파이전서 3:7 참조)

여러분의 목적의식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커진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제3니파이 5:13 참조)



2. 예상 못한 발견

차츰 집과 가족, 친구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봉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엘마서 26:27 참조)

여러분이 받는 스트레스로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또는 신경 과민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기대와는 달리 규칙과 기대치에 비판적이고, 못 견뎌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문제의 일부나 전부가 일어난다면, 이는 새로운 선교사 상당수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감정은 없어질 것이며, 여러분은 적응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용기를 얻기 바란다.

3. “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르치는 기술과 언어 능력이 향상되기 시작한다.

선교부 규칙과 선교부에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들에 기꺼이 따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교훈에 교훈을”(이사야 28:10; 모사이야서 4:27 참조) 더하여 배우는 동안 인내심을 발휘한다.

신체적인 스트레스 증상이 있었다면, 비로소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4. 정서적인 자립

일과를 소화하는 일이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진다.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게 되고, 자신이 발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삶에서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된다.(교리와 성약 98:12 참조)

더 큰 자신감과 봉사하고자 하는 더 강한 소망을 품게 된다.

